

WTO 이후 세계 낙농시장의 변화

김 경 량

강원대학교 축산경영학과

I. 서 론

2차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을 주도해 오던 GATT체제는 UR 협상의 타결에 따라 1995년부터 WTO(세계무역기구)체제로 이행됨과 동시에 우리에게 유제품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전면적인 수입 자유화가 실시된다. 그 중에서도 유제품은 다른 농산물에 비해 수입 자유화의 시기가 빨라 1995년 분유, 유장분말, 치즈와 1996년에는 버터, 연유, 유당등 모든 유제품의 수입 자유화가 실시됨에 따라 이제 낙농분야는 국제적인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국내의 낙농은 유제품에 대한 국내외의 현격한 가격차로 인해 시유 공급에 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가운데 1994년 7월 호주 정부는 현재 7주로 되어 있는 멸균유의 유통 기한을 8개월로 연장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유통기한 연장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에 따라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국내 낙농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시유시장마저 잠식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 동안 국내의 낙농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시유의 꾸준한 소비 증가가 뒷받침 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시유의 소비 증가도 금후 치즈를 포함한 값싼 유제품의 수입 증가에 따라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이는 곧 제한된 시유시장을 둘러싼 유업체간 또는 지역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같은 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금후 낙농부문 및 유가공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그동안 폐쇄경제하에서 견지해 오던 공급관리형에서 탈피하여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시장중시형으로 이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인식하에 WTO출범 이후 국제 낙농시장의 변화 모습을 고찰함으로써 국내 낙농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문제 제기 및 대응 방안에 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지면 관계로 일부만 실었음. 제40회 춘계세미나 요약집 참조>

II. WTO발족에 따른 각국의 대응

세계의 원유생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물량은 국내에서 생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고 소비자와 국민적 여론을 얻으면서 다소의 비용 증대를 시인해 주었으면 한다. 이는 국내 소비자도 납득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당분간은 비용이 증대 하겠지만 앞으로는 생산자 쪽에서 노력해서 서서히 내려갈 것이기 때문이며 그러기 위해서도 낙농으로 살아남아 가려는 사람에 대해서 장래의 비전을 제시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기본적인 작업을 하지 않고 중도에서 포기해 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이다. 세계의 원유생산은 한계가 있으므로 안이하게 부족분은 수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경제성만이 추구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안정 공급이나 안정성을 포함한 품질의 향상등이 부각될 것이다.

최근 UR을 둘러싼 세계 낙농제품의 교역에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1994년 네델란드의 Rabobank에서 발간된 '세계낙농제품시장'이란 보고서에서는 세계전체 낙농제품의 소비증가율을 약 0.5%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소비증가는 아시아 지역과 남미지역을 중심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구매력 증대와 인구증가를 들 수 있다.

세계 낙농제품의 교역규모는 약 230억\$에 이르는데 이 중 EU와 뉴질랜드가 상위를 점유하고 있다. UR의 타결은 뉴질랜드와 호주의 낙농산업에 청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이 지역의 낙농산업은 이미 국가보조가 없는 상태에서 경쟁력을 지닐 뿐 아니라 새로운 성장잠재시장인 동남아시아 지역에 근접해 있다는 지리적 장점이 있다.

각국 정부의 보조금 및 수출보조 대상품목 수출량을 향후 6년간에 걸쳐 각각 36%, 21% 삭감하여야 됨에 따라 세계 유제품의 감소와 국제 유제품 가격상승이 전망된다.

1. EU

유럽 즉 EU낙농업계에서는 새로운 시장 조건에 적응하기 위하여 생산 측면에서 비용절감과 域內市場擴大, 수출보조금 삭감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국경을 초월하여 합병등에 의한 규모확대를 꾀하고 있다.

유럽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 체계로 급속히 개편되어가는 동구의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력 추이를 주시하고 있으며 이와함께 구 소련 시장의 변화도 관찰하고 있다.

1994년 10월 London에서 열린 "Dairy 94" Conference에서 EU 차원 WTO와 EU-Reform등에 따른 새로운 낙농환경의 변화에 대해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특히 1995년 부터 EU에 추가로 가입하게 되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랜드의 영향으로 유럽 낙농업계는 부수적으로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UR과 EU공동농업정책의 개혁으로 낙농품의 수입증가, 수출보조 감축 추세속에서 1백만t 정도의 공급과잉이 예상되었으나 3개국의 추가 가입으로 EU내 낙농시장은 원유환산량으로 약 200만~300만t의 과잉현상이 예측되고 있다.

표 1. 주요국의 유제품 수출량 (1990~92년 평균)

(단위 : 1,000톤, %)

구 분	미 터		탈 지 분 유		치 즈	
	수 출 량	구 성 비	수 출 량	구 성 비	수 출 량	구 성 비
EU	235	33.6	322	37.9	444	53.9
뉴 질 랜 드	205	29.3	171	20.1	97	11.8
호 주	55	7.9	115	13.5	60	7.3
미 국	86	12.3	69	8.1	13	1.6
캐 나 다	9	1.3	40	4.7	10	1.2
기 타	109	15.6	132	15.6	200	24.3
합 계	699	100.0	849	100.0	824	100.0

자료 : USDA, World Dairy Situation, 1994.

주 : 합계는 유제품 생산과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6개국의 합계임.

표 2. 주요국의 유제품의 수입량 (1990~92년 평균)

(단위 : 1,000톤, %)

구 분	버 터		탈 지 분 유		치 즈	
	수 입 량	구 성 비	수 입 량	구 성 비	수 입 량	구 성 비
일 본	14	3.4	98	27.1	119	20.6
EU	73	17.6	14	3.9	128	22.1
미 국	2	0.5	1	0.3	133	23.0
캐 나 다	0	0.0	1	0.3	20	3.5
구 소 련	262	63.1	3	0.8	20	3.5
맥 시 코	7	1.7	165	45.7	16	2.8
기 타	57	13.7	79	21.9	143	24.7
합 계	415	100.0	361	100.0	579	100.0

자료 : USDA, World Dairy Situation, 1994.

주 : 합계는 유제품 생산과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6개국의 합계임.

EU 낙농의 또 한가지 토의대상인 Quota제의 지속적인 실시 여부는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더불어 EU 각료이사회에서 더 이상의 생산할당량 감축은 결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생산자 입장에서 볼 때 공급과잉에 의한 EU 지지 가격수준 이하로의 가격인하를 의미할 수 있다.

낙농제품의 교역에서는 EU로의 수입은 감소되는 반면 수출노력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전반적인 EU 낙농제품의 교역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UR에 따른 낙농제품별 영향은 EU내에서 치즈 부문이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유럽내 낙농시장이 UR에서 타결된 EU의 2%생산 쿼타감축과 EU내 소비증대로 수출감축량 182,000t과 시장접근허용 105,000t을 상쇄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무분야에서는 매우 회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유가공업계 입장에서는 공급안정과 장기적인 마케팅 투자, 단기저장가능 유제품수출 그리고 생산촉진, 판매계획 수립등을 위해 EU내 경영 및 Monitoring 체계에 관한 정보

System을 구축하여 경쟁력을 제고시켜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가공업체들은 국제시장, EU시장의 동향에 대해 EU-집행위원회가 자문을 담당하여 주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통해 EU내 치즈시장의 확대와 생산자소득의 증대, 해외시장의 확대 등을 기존의 정부지원없이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예로 덴마크의 낙농산업은 GATT/UR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국가중 하나이며 이에 따라 특히 치즈의 경우 수출패턴을 재조정 할 수 밖에 없다. 덴마크내 원유가격은 지난 6년간 10% 정도가 하락함으로써 타국가보다 피해가 컸는데 대규모 유가공업동조합들의 자체 구조개선 전략을 통해 자구책이 마련되었고 이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EU 낙농산업은 Market-Oriented된 시도를 통해 생산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EU-집행위원회는 EU의 수출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외정책의 강경한 입장을 경주하여 주도록 요구받고 있다.

유럽낙농은 이제 서서히 CAP-Reform과 UR의 충격에서 벗어나 공세를 펼 준비를 하고 있으며 특히 EU가 유럽낙농이 받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직접소득 보전제도의 지속적 시행을 믿고 있다.

EU가 WTO에서도 막강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믿고 각국의 농무장관들은 EU의 각료이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자국농업과 농민을 지켜줄 것으로 낙농가들은 믿고 있으며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규모확대와 경영합리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꾀하는 현상과 지역정책, 사회정책으로서의 농업의 역할을 주장하는 양면적인 정책진개가 예상된다. EU의 원유지지가격은 궁극적으로 세계시장 수준으로 인하될 것이며 이에 따라 소득 손실을 사람, 농가, 면적에 따른 직접지불(direct payment)로써 해결하고 세계시장 수준에 이르면 무차별 공략도 생각하고 있다.

중단기적으로 EU 낙농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폴란드, 구 소련등 4지역의 집중투자과 생산성 향상이다. 3~5%에 이르는 최소시장 접근(Minimum Market Access)은 우선적으로 동구권 낙농제품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많은데 이와 연관되어 동구권국가 지역에 서유럽의 자본과 기술이 신속히 이전되고 대규모 현대 유업체들이 곳곳에 건설되고 있다.

바야흐로 개방과 물결이 피부에 와 닿고 있다.

250g 버터의 시장소매가격이 이미 평균가격인 1,000원선에서 600원까지 바겐세일이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버터와 마가린의 가격차도 거의 없어질 수 있다는 예측과 버터 가격의 하락이 소비의 증대를 가져오고 이는 결국 EU 낙농의 장래를 보장한다는 전문집단의 보고가 있다. 앞으로 5~10년내에 커다란 구조 변혁과 함께 EU 낙농은 현대화된 시설, 유통체계와 더불어 세계낙농에서의 자체 부분을 방어하고 치즈등 고부가가치 유제품의 수출에 더욱 정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2. 일 본

유럽에서는 새로운 낙농제품의 시장으로서 동남아시아 지역을 지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수출시장으로 주목 받는 곳이 일본이다. 이미 일본은 자연치즈, 아이스크림, 냉동요구르트 및 식용유지방 등은 수입자유화를 한 상태여서 2000년도까지 UR에 따라 EU 국가들의 재고가 가장 많은 두 품목인 버터와 탈지분유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야 하는 과정에 있다. 즉 일본은 2000년 이후의 완전자유화에 따른 일본 낙농의 문제를 심각히 고민하며 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일본 낙농업계에서는 UR이후 예상되는 관세인하 조치에 의한 수입가격 인하와 함께 일본 엔화의 평가 절상으로 인한 상대적 가격 변화를 더 두려워하고 있다. 실제로 1993년 1US \$당 140 ¥ 수준에서 올해 이미 80¥이 돌파되었기 때문에 수입가격은 상대적으로 더 낮아져 국내 낙농품시장을 크게 교란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UR에서 규정한 최소시장 개방에 따라 시유환산기준으로 첫해인 1995년에는 124,640t을 개방하고 6년째인 2000년에는 133,940t을 개방해야 한다.

일본은 유지방이 과잉 공급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분유상태로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낙농은 국산품의 시장점유율의 점진적 하락과 생산조정정책 강화로 규모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며 대형유업체들이 호주등에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한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해 조제분유의 수출을 추진중이며 호주등 현지투자를 통하여 값싼 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예상되고 있다.

유제품의 국제가격은 특히 치즈를 중심으로 보조금 감축, 쿼터를 가진 생산국의 쿼터정책의 동향, 오세아니아주의 생산확대 여력, 특히 아시아 각국의 경제성장, 구 소련의 동향, BST의 동향 등

갖가지 요인이 예측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수입유제품가격과 국내가격과의 관계에서 국제가격의 동향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국제가격에 관세상당치를 추가한 수입가격은 2000년에도 국내의 안정지표가격보다 30%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할당량 이상의 수입증가는 앞으로 6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00년에 관세상당치 감축이 끝나지 않고 그 후에도 같은 기준의 감축(2.5% 씩을 매년 감축)이 계속되리라 보기 때문에 2000년의 30%의 가격차이는 그리 멀지않아 동등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본의 축산진흥사업단이 징수하는 부과금 상한선도 15% 감축되므로, 2000년의 수입가격과 안정지표가격의 차이는 탈지분유에서 15%, 버터에서 17%가 되어 그 차이는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그리고 부과금은 상한치이므로 이것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되는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치즈, 아이스크림 등 이미 자유화되어 있는 유제품 및 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스킷 등 최종제품의 관세인하의 영향은 유예기간 없이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1995년부터 국내 가공원료용 유가의 인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연치즈는 현재 세율 35%에서 2000년에는 29.8%, 분말치즈 26.3%, 피자용 냉동치즈 22.4%까지 그리고 아이스크림은 28%에서 21%까지 인하되고 비스킷은 24%가 15%로 인하된다.

결론적으로 이미 자유화된 치즈,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및 비스킷 등의 최종제품의 관세인하의 영향은 즉시 나타날 것이고 기타 제품에 대해서는 당장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2000년 이후의 동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UR이 2000년대 우유·유제품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농업 전반 또한 농산물 가공업자도 수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증가는 국제 무역 마찰의 관점에서 당연 취해야 할 조치이고, 새삼스레 원점으로 되돌리려 해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우유·유제품의 소비 동향을 보면 지금까지는 일본에서는 소비가 증가하였으므로 '수입해라'라고 주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입을 늘려 온 것이 사실이다.

냉전 구조는 붕괴되고 있으며 이념상으로 국경은 없어지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인식할 때 소비동향이 변했기 때문에 수입을 하느냐 마느냐를 말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낙농산업에 있어서는 향후 소비 동향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건강에 관한 정보에 소비자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저지방우유의 소비가 상당히 신장되어 왔는데 그 배경에는 건강정보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유가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다'라는 정보로 우유의 소비가 신장되었는데 이는 낙농산업도 얼마나 정확히 소비자에게 장점이 있는 정보를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소비의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흘려 내보내는 것이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일본에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고령화 사회가 되므로 고령화 사회를 목표로 한 우유·유제품의 홍보이다. 즉 소비자를 하나로 묶지 않고 각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정보를 어떤 형태로 내보낼 것인가가 주요 과제로 등장되고 있다. 소비동향은 예측할 수 없지만 정확한 정보에 의해 소비추세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일본 유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3. 오세아니아 국가

호	주
---	---

수출가격의 상승등 시장여건의 호진과 낙농공사의 대외 마케팅 전략등으로 생산 및 수출이 증

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EU·이집트·이란을 주 수출국으로 보고 버터는 전년대비 27% 수준 수출증가 전망하고 있으며 치즈는 미국·일본·호주 지역을 대상으로 30% 수준 수출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탈지분유도 러시아지역·필리핀·대만 등에 대한 수출증가로 30% 내외의 수출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호주는 뉴질랜드처럼 확실하게 특화된 제품은 없지만 치즈를 많이 생산하고 있고 일본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뉴질랜드 다음으로 높아 그 기세에 편승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호주의 치즈 수출의 절반은 일본용이기 때문에 더욱 더 치즈로 특화해 가려고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탈지분유와 버터의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는데 탈지분유의 대부분은 아시아 시장을, 버터는 아프리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뉴 질 랜 드

이번 UR협상에서 결정된 수출보조금 감축은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호재이다. 세계의 원유 생산량 중 유제품 교역량은 5% 전후로 이 중 약 25%가 뉴질랜드의 유제품이다. 나머지 상당 부분은 유럽의 유제품이 차지하고 있고 그 외는 호주, 미국 등인데 이들 국가는 수출보조금을 지원하여 수출하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 유제품은 정부의 수출보조금이 전혀 없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상대국의 수출보조금이 조금이라도 감축되는 것은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개개의 품목의 경우 유럽용 버터의 출하는 다소 증가할 것이며 종래부터 영국은 뉴질랜드 버터의 큰 시장이었는데 그 양을 늘릴 수가 있게 된 것이다.

뉴질랜드는 목초 지역에서는 육우나 양에 비해서 낙농이 가장 유리하고 일부 육우목장을 낙농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도 가능하다. 1993년에는 양호한 기상조건으로 생산량이 전년대비 13%라는

상당히 높은 증가를 하였는데 장기적으로 보아 년 3%정도의 증산이 가능하다고 기대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생산량은 세계의 총 생산량의 1.6%를 점유하므로 세계 전체에 주는 영향이라는 의미에서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세계 유제품수출의 선두주자로서 고품질 유제품의 수출을 목표로 해서 경쟁성이 높은 낙농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안정된 공급력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뉴질랜드 유제품은 1950년대 초기부터 일본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데 일본 시장의 장래전개에 대해 뉴질랜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우유·유제품 총 소비량은 약 1,200만톤(원유 환산)이지만 국내생산량은 약 850만톤이고 부족한은 수입제품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국민은 칼슘 섭취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치즈는 칼슘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식품이다. 이미 일본의 치즈 시장에서 뉴질랜드 제품의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유망한 상품이다. 특히 유단백질 상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영양과 식품특성이라는 관점에서 카제인이나 농축웨이 단백질등 유단백질을 이용한 제품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기 타

1) 미 국

UR이후 미국낙농은 경영규모의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국내 자급위주에서 수출지향으로 낙농부문의 목표를 전환시키고 있다.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규모확대를 통해 생산성 증대를 꾀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의 시장잠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4년도 전반기중 미국의 버터소비는 전년도에 비해 12.7%가 증가된 233,190톤에 달했다. 탈지

분유의 경우 49.4%의 증가를 보였으나 치즈의 소비증가는 이에 비해 미미한 수준을 보였다.

유럽과는 달리 미국의 낙농시장은 국내시장에서의 시장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과 함께 이를 위해 비용/가격,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생산품의 시장 차별화도 시도되고 있다. 또한 NAFTA 체결과 함께 새로운 시장인 멕시코에 대한 수출, 특히 탈지분유의 수출을 경주하고 있다.

2) 동남아시아

세계의 주요수출국들은 최근 유제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에 버터, 전지분유, 탈지분유 등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국가에 따라서 내용은 다르지만 총괄적으로 유제품은 영양원 또는 기초식료품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는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유지방 제품보다도 유단백질 제품이 많아질 전망이다. 이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는 다이어트 형태의 식품 소비추세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일본과 같은 소비경향을 띄고 있다. 또한 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자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소비가 많아 자급도가 떨어지고 있다. 때문에 일본의 동남아시아

의 국가의 낙농시장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Ⅲ. WTO발족 이후 한국 낙농의 과제

1. 개방의 예상 영향

우리나라의 우유소비는 음용유의 비중이 70%이며, 이들 품목은 교역이 어려워 수입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시유의 품질저하·가격상승의 경우에는 멸균우유가 수입되거나 환원유가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치즈·버터등 유가공품에 사용되는 원유량(Δ5~10%)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장분말은 국내 생산이 되지 않고, 기존 수요자(조제분유·대용유용)위주의 수입이 예상되고 분유는 낮은 관세인 모조제품의 수입증가와 값싼 호주산 일본상표(OEM)의 조제 분유가 수입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연유는 수요가 극히 적고, 유당은 국내 미생산 품목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 제품별 영향 분석

품 목	영 향
시 유	<p>시유는 수입개방 영향이 적기 때문에 유업체의 시장확대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며 멸균시유는 현행 식품공전상 유통기한이 7주이므로 해상운송에 의한 수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나 유통기한이 외국과 같이 6개월로 연장될 경우 국내시유시장 잠식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됨.</p> <p>환원유는 분유의 고율관세 적용으로 2000년까지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나 그 이후에는 관세의 축소에 따라 영향을 점점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됨.</p>
발 효 유	<p>발효유도 수입개방 영향이 적기 때문에 각 유업체의 시장확대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전망됨.</p> <p>발효유 가공시 탈지분유 대신 값싼 모조탈지분유(탈지분유 75%+유장분말 25%)를 사용하는 업체가 많을 것으로 전망됨 (탈지분유 소요량의 50% 수준 모조탈지분유 대체 가능)</p>

품목	영향
분유	<p>분유는 220% 고율관세 적용과 수출국들의 재고량 및 수출물량 감축, 낙농가 보조 및 수출보조금 삭감등에 따라 수출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며 20~30% 상승이 예측됨.</p> <p>이에 따라 2000년까지 분유의 직접수입에 의한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측되나 유장분말, 카제인, 모조분유, 기타유제품의 수입으로 분유 시장을 50% 이상 잠식할 것으로 전망됨.</p>
치즈	<p>치즈류는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자연치즈와 가공치즈가 각각 124%, 164%씩 비싸기 때문에 국내시장이 90% 이상 잠식될 것으로 전망됨.</p> <p>특히, 외국 유명업체들 (크래프트 등)이 국내유업체 및 식품업체와 OEM생산 또는 유통업체에 직판시 국내 치즈가공업체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존 치즈설비 가동율의 급격한 저하 및 불용화가 예상됨.</p>
버터	<p>버터 및 연유는 국·내외 가격차이가 적고 시장 규모도 협소하기 때문에 유제품 전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됨.</p> <p>그러나 유업체들의 비수기 탈지분유 생산에 따른 버터 생산량의 비례적 증가로 가격경쟁력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전망됨.</p>
기타	<p>유장분말, 우유합유조제품, 초코파우더 및 모조분유등 기타 유제품의 수입사용시 국내 분유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p>

자료 : 농림수산부

2. 한국 낙농의 경쟁력 수준

- 호당사육규모 ; 한국 21두, 일본 38두, 네델란드 40두, 미국 48두

가. 원유생산비 비교

조사료 이용이 부진하고 농후사료 의존도가 높아 생산성 저하

사육규모가 작고 시설이 노동집약형으로 노력비등 관련비용이 많이 소요

- 두당 산유량 ; 한국 5,665kg, 미국 7,052kg

구분	사료비	노력비	자본이자	기타	계
한국 (A)	182원/kg	147	62	10	401
미국 (B)	122	47	46	17	232
A/B	1.5배	3.1	1.3	0.6	1.7

자료 : '93 축산물 생산비조사 비교 (축협중앙회), Cost of Production-Dairy(USDA).

나. 유제품의 국내외가격 비교

(단위 : 원)

품 목	국내가격 (A)	수 입 가 격			대 비 (A/B)
		수입원가 (CIF)	관세액 ('95 세율)	수입제비용 · 이 윤	
멸균우유	180 (200ml)	80 (\$ 0.5/L)	32 (39.6%)	6	118
백색우유	160 (200ml)				(118)
탈지분유	5,700 (kg)	1,600 (\$2,000/t)	3,450 (215.6%)	128	5,178
전지분유	5,100 (kg)	1,600 (\$2,000/t)	3,450 (215.6%)	128	5,178
조제분유	2,900 (420g)	1,080 (\$1.35/420g)	428 (39.6%)	86	1,594
모조분유	5,700 (kg)	1,840 (\$2,300/t)	729 (39.6%)	147	2,716
모자치즈 (모짜렐라)	8,250 (kg)	1,840 (\$2.3/kg)	729 (39.6%)	147	2,716
가공치즈 (체 다)	6,820 (kg)	2,480 (\$3.1/kg)	982 (39.6%)	198	3,660
버터	5,250 (kg)	1,200 (\$1.5/kg)	1,176 (98%)	96	2,472
유장분말	1,000 (kg)	440 (\$550/kg)	414 (94.1%)	35	889

* 수입제비용·이윤은 수입원가에 8% 적용, CIF가격은 '94. 10 국제가격 예측치.

자료 : '94. 9 무역통계연보, Agra Europe Preserved Milk ('94. 10).

다. 한국 낙농산업의 문제

생 산 측 면

사육규모의 영세성, 조사료 자원의 부족, 낮은 생산성등으로 경쟁력이 낮다. 사육규모는 1/3, 우유생산성은 80%, 우유생산비는 2배수준이며 벗짚 위주의 사양과 농후사료의 과다사용등으로 젖소 능력의 발휘에 제약이 되고 있다.

소 비 · 유통 측 면

음용유 위주(70%)의 우유소비 구조로 수급조절이 곤란하다. 여름철에는 소비가 증가하고, 동절기에는 소비감소등으로 계절적 수급균형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 음용유 소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입개방에는 유리하나, 부패성이 크므로 생산과잉시에는 원유의 처리가 곤란하다.

시유의 전국적인 광역유통 및 가정배달로 과다한 유통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대리점 운영에 따른 비용과 지방운송비, 배달원 마진등이 과다 소요되고 있다. 공장도가격 대비 소비자가격 비율은 1983년도 140%, 1989년 167%, 1993년 188

%이다.

낙농제도 측면

집유, 검사, 원유가격 결정등 관련제도의 개선 지연으로 고질적인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유업체간의 집유선 중복 및 유업체의 자체 원유검사로 원유 유통비용의 과다발생 및 농가와 유업체간 불신, 대립 지속과 정부의 농가 원유 판매가격 결정 및 민간 자율적인 수급조절기능 미비로 농가의 정부 의존이 심각하다.

일본, 구주등 선진국은 생산자단체로 집유일원화, 원유검사의 공영화, 민간 자율적인 수급조절·원유가격 결정 기능이 정착된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낙농진흥법개정안이 '93. 2월 국회 제출, 아직까지 계류중이다.

IV. 결 론

UR이후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속에서 세계낙농은 대변혁을 경험하고 있다. 현재 인터내셔널 빅네슬레나 유니레버와 같은 세계적인 식품 기업이 아시아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 이미 진출하였으며 세계의 대형유업체들은 국내 시장이 포화상태로 될 것을 감안하여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유·유제품은 특성상 시장가격으로 가격이 결정되기 어렵다. 우유는 부패성과 저장이 곤란하고 농가는 거래교섭력이 약하며 시장기능에 맡기면 가격 변동폭이 크다는 낙농가와 유업체의 교섭력의 문제와 가격변동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영국의 낙농위원회, 미국의 우유유통위원회 등의 제도가 있다. 낙농선진국에서 이런 제도가 탄생한 배경에는 오래전부터 우유·유제품의 특성을 인지하였기 때문이다. 유제품의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수급균형과는 동떨어진 높은 가격이 유지되면 수요는 국산품에서 수입품으로 대체될 것이다. 이것이 낙농의 시장기능이므로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가격안정책이든 가격교섭력을 대등하게 하는 대책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나서 시장기능이 건전하게 작용하는 구조를 조성하는 것이 기본이며, 지금까지 폐쇄된 시장기능을 탈피하여 수입유제품 가격과 비교하면서 국내에서 공급해 갈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야 할 것이다.

향후 낙농정책의 방향으로는 현재의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보다 낮은 비용절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만약에 관세율이 내려도 그것과 평행해서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으면, 접근수량 이상의 수입은 막을 수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비용절감을 피하는 것이 중기 목표로서 요구된다.

관세의 수준이 10년후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으나 비용을 절감해도 수입 가격과의 차이가 있다면, 국민에게 그것을 어느 정도 홍보하고 국내낙농의 지지자로 만들어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적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 검토 및 관리를 해야 한다. 이상적인 형태로 규모를 확대하여 가장 효율적인 경영이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비용을 절감하고 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며, 이렇게 해서 비용이 절감 되더라도 수입가격보다 비싸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에게 낙농 상황을 정확히 호소해야 한다.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해 비용절감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려야 하고, 넓은 의미에서 낙농의 강점을 정확히 호소해야 한다. 비용을 절감하여도 외국제품 가격보다 높다면 국가차원에서의 제품차별화를 위해 낙농을 알기 쉽게 호소해야 한다. 상표마다의 차별화와 국가수준에서의 차별화가 혼합됐을 때, 다소 가격차가 있더라도 국내제품을 살 수 있도록 소비자를 납득시켜야 한다. 제품의 차별화 즉 영업활성화와 비용절감을 추구하면서 낙농 방향을 정책으로서 확실하고 알기 쉽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수출국의 마케팅은 세련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폐쇄된 시장 내의 마케팅밖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입제품이 품질과 영업력을 적절히 조화시켜 국내시장을 공략하면 속수무책이므로 이에 대응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분노처리와 환경문제의 극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환경문제와 연계한 산지의 낙농을 육성해야 한다. 지역·농업정책 등의 정비가 필요하며, 토지이용 체제로 전환하고 경영체를 빈틈없이 육성하고 나서 평지역과 산지의 단점을 보완하고 분업화를 유도하여 산지에서도 낙농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산지낙농의 강점을 호소하여야 한다. 입지조건에 맞는 조사료 생산이 가능하고 경영의 다각화 가능성도 존재하여 마케팅이나 지역정책의 관점에서 산지낙농육성이 필요하다.

향후 낙농의 방향으로서 유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인하와 가격의 인하가 병행되어야 한다. 수입자유화하에서는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므로 생산비의 인하가 중요하다. 향후 낙농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야 한다. 30~40세의 사람들이 10년 후에는 얼마만큼 경영을 확대하고 충실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향후 은퇴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을 즐길 수 있는가 혹은 중간에 좌절하지 않고 낙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반 조건은 우리에게 불리하지만은 않다. 기술 집적이 있고 우수한 전문 인력의 확보가 가능하며 미래의 유제품 시장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UR이라는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한 도구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총력적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첫째, 뒤떨어진 기술,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 이에 연구개발·지도·관측 등 기술적인 사항과 가격결정, 집유 등급제, 원유검사 등에 따라 제도적 측면이 보완되어야 하고 세계우

대 및 사회보장측면에서의 연금, 보험제도 등 공공 서비스 기능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회에 계류된 낙진법의 조속한 통과가 요구된다. 저 자원국으로서의 이스라엘 낙농에서 조직화와 신기술 도입의 조화가 만들어 낸 세계 최고의 생산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전문화된 인력과 생산자 단체, 정부가 혼연일체가 될 때 이 지구상 어느 국가 못지 않는 모범 낙농국의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낙농부문의 생산구조 조정을 통하여 지금까지의 규모성장에서 벗어난 질위주의 낙농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하여야 할 것이다. 착유, 육성, 번식 등의 분화를 유도하여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전문 낙농인의 육성에 전력하여야 할 것이다. 좁은 국토내에서 그간 투자 개발하여 온 초지들이 부실화 되어 방치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한국 낙농의 미래는 이러한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아래에서 어두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숨겨지고 이용되지 않는 미래의 자원을 활용하고 생산 현장에서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이르는 과정이 체계화, 조직화, 과학화가 될 때 우리는 우리 모습의 낙농 산업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선진국 낙농의 역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와 이에 대한 정책의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세째, 국내 우유의 수급안정화 장치를 장기적 측면에서 준비하여야 한다. 비축, 재고 기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유통과 무역 기능의 보완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또한 유가 공업체들은 쌀 수입원료의 이용을 통한 제품판매, 이윤확대에 급급하여서는 장기적으로 생산기반이 없는 낙농산업의 영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고유의 제품 개발 노력과 함께 비용절감등을 통해 외국의 유가 공업체와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 유업계계의 추세인 규모화를 이루기 위해 유업체간의 합병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

이며 이와 함께 유업체별 가동을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낙농 분야에서는 여러가지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생산자 자체의 조직화를 통한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 노력, 도시근교 낙농구조의 개편을 위한 착유의 전문화와 육성의 분화시도 및 자체 공동사료 배합 및 조달 계획, 낙농 헬퍼제도를 통한 노동력 문제 해소노력 등 생산자, 생산자 단체의 자구적인 노력과 정부의 투자지지 등이 나

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노력들은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연계될 때만이 그 효율성이 기대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정부와 생산자 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국가의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체계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 노력하는 전문 낙농인이 삼위일체가 될 때 한국낙농은 우리 경제가 이루었듯이 지구상에서 한국낙농의 독특한 형태로 경쟁력을 갖추며 우리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